

한 자리에

박영숙 여성단체연합 위원장

여성운동도 투표권의 중요성과 연결시켜야

86년은 각 여성단체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여성들의 힘을 합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연합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 특이할만한 한 해였다.

86년도 여성계 최대 관심사였던 부친서 성고문사건, KBS 시청료거부운동의 여성단체연합을 이끌고 일년동안 바쁘게 뛰어온 박영숙 위원장.

「여성단체 연합이 구성되어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것은 올봄 개헌서명을 비롯해 KBS 시청료거부, 성고문대책위, 민주교육선언, 노동자생존권대책위의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까지의 남성의존적이고 보조적이던 여성부로 썩어 아니라 여성 독자적으로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가족법 개정을 둘러싸고 유럽측과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비판을 가하면서「앞으로는 여성들이 투표권과 연결시켜 여성의 힘을 조직화하는데 주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여성단체는 성명서를 통한 과시가 아니라 투표권의 중요성과 연결시킨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단



체까지도 가담시켜 전국적인 활동을 벌여 나가야겠다고 87년 계획을 밝힌다.

「앞으로는 모든 활동이 정치운동차원으로 들어가야만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87년도 여성단체연합의 활동도 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위원장은 86년을 마무리하면서 성과를 저울질해보기 보다는 힘의 열세로 밀려야만 했던 가슴아픈 부분을 마음속에서 지울수가 없다.

「KBS 시청료거부운동은 전례에 볼 수 없었던 전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최소한 우리의 뜻은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통합고지서가 발부되는 사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부친서 성고문 사건도 자신이 당한 문제를 폭로만 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도 있었던 것을 권양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보니 지금도 가슴 아프게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은폐된 사실과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여러 단체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성과라 할 수 있겠지요.」

87년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전개될 지 모르나 86년에 보여준 여성들의 큰 힘은 이제 확신을 갖고 대처해 나갈 터는 잡혀진 것이다.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강한 힘을 내재하고 있는 박영숙위원장. 87년도에도 그의 발길은 분주할 것 같다.